

동북아시아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한국의 무역 진흥 전략*

장영수**, 김병호**, 김기수***, 박명섭***, 정형찬***, 어윤양***

A Study of Korea Sea Food Trade Promotion Policy in East-North Asia

Jang, Young-Soo · Kim, Beong-Ho · Kim, Ki-Soo · Park, Myong-Sop ·
Jung, Hyung-chan · Eh, Youn-Yang

〈目 次〉

I. 서론	상 물동량 추정
II. 동북아 지역의 수산물 국제무역구조	3.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반입예 상 물동량 추정
1. 수산물의 국제무역 구조 분석	V. 동북아 수산물 물류거점지역으 로서의 경쟁잠재력
2. 동북아시아의 국가간 수산물 교역구조	1. 시설능력
III. 수산물 자유무역지대의 전략	2. 가공 능력
1. 동북아 수산물무역 거점화의 필요성	3. 냉동냉장창고 이용 비용
2. 수산물 자유무역지대의 의의	4. 항만 물류비용
IV. 수산물 자유무역지대 설치효과 의 경제적 분석	5. 노동력의 경쟁조건
1. 무역확대효과와 무역전환효과	VI. 결 론
2. 무역확대효과로 인한 반입예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 : Fisheries Free Trade Area(FTA), Fisheries Logistics, International Fisheries Trade

* 본 연구는 1998년도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부경대학교 수산기업연구소가 수행한 "WTO 체제하의 동북아시아 수산물 무역 진흥 방안"의 공동연구 결과임.

** 부경대학교 해양산업정책학부 교수

***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 서론

수산물과 같은 1차품의 국제무역 특징은 일반제조품과는 달리 노동대상의 분포에 의해 규정되는 “자원의존형”의 성격이 강하고 이를 기초로 무역이 행해지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산물무역자본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말하는 “노동지향형”, “시장개척지향형”의 자본진출도 표면적으로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것 역시 정도의 차이로 진출 상대국의 수산자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 따라서 상대국의 수산자원의 존재가 양국간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FAO자료에 의하면 동북아 5국(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상호간의 수산물 교역규모는 1996년 현재 1,992,636톤에 이르고 있고, 교역금액은 7,982,027천달러(약 10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교역량이 불명인 국가간 거래를 감안하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 기준 5개국간의 전체 수산물 교역량 대비 각 국가간 교역량 비중은 미국과 일본의 교역이 2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교역이 21.5%, 일본과 러시아의 교역이 11.2%, 한국과 일본의 교역이 10.8%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또한 5개국간의 전체 수산물 교역금액대비 각 국가간 교역금액 비중은 위에서와 달리 중국과 일본의 교역이 2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의 교역이 23.8%, 한국과 일본의 교역이 16.4%, 일본과 러시아의 교역이 15.4%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들 5개국간의 수산물 국제 거래 실적 이면에는 상류(商流)와 물류(物流)가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200해리 체제이후 거대 자원 보유국이자 어업생산국으로 부상한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 연육, 명란, 게, 그 외 북태평양 어종을 중심으로 하는 냉동품 등이 우리 나라에 대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들은 통과무역(TT : transit trade)이나 보세창고도거래(BWT : Bonded Warehouse Transaction)를 통해 재차 제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동북아 수산물 교역에 있어 우리 나라를 경유하는 TT나 BWT거래에 있어 상류적인 거래실적은 양국간의 실적으로 평가되지만 물류적인 측면에서는 중간에 우리 나라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T와 BWT물량 규모에 대한 통계 자료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연간 60~70만톤 이상이 우리 나라를 경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 수산물 무역에 있어 자원의존형이란 수산자원국이 수산물 수출국으로서 위치하고 비수산자원국이 수산물 수입국으로 위치하여 교역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예를 들면 러시아와 한국간의 명태 수산물 교역이 여기에 해당함. 노동지향형이란 노동조건의 우위국 예를 들면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 조건을 갖춘 국가에 수산원료를 보내어 임가공을 행한 후 재차 수입하는 교역 형태로 우리나라, 일본이 동남아시아, 중국에 수산원료를 보내 가공후 재차 수입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함. 시장개척지향형이란 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 기업이 수출대상국에 현지 가공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 법인화 한 후 시장 개척 판매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형태로 미국이나 유럽에 게맛살 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수산물 교역에 있어 우리 나라의 대응 전략을 제시함에 있어 이상에서 언급한 동북아 수산물 교역의 현상적 특징을 중심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교역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 주요 5개국간의 수산물 교역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교역 물량의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제도적 인센티브의 부여를 통한 활성화 방안의 대안으로서 수산물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창출하는 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연 우리 나라가 지닌 경쟁력 조건의 우위와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동북아 지역의 수산물 국제무역구조

1. 수산물의 국제무역 구조 분석

1) 동북아 지역의 수산물 교역실태

FAO 통계에 의하면 1996년 현재 세계 총어업생산은 1억2천만톤에 이르고 있고, 이는 1995년 대비 3,732천톤, 그리고 3.2%가 증가하였으며 1994-1996년 3년 평균 3.3%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어업생산에 있어서 동북아 4국 및 미국의 위치는 중국이 약 3천 2백만톤으로 세계 1위의 생산국이며, 일본이 약 6백 8십만톤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이 약 5백 40만톤으로 세계 5위를, 러시아가 약 4백8십만톤으로 세계 7위를, 우리나라가 약 2백 8십만톤으로 세계1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5국의 어업생산이 세계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이 38.5%, 1995년이 40.8%, 그리고 1996년이 42.7%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이 지역의 수산업의 수급구조, 교역환경, 경쟁력구조 및 수산정책의 변화는 곧 바로 세계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 전체의 수산물 무역은 수출 및 수입모두 1994-1996년 3년 평균 5.4% 및 5.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다<표II-1>. 5개국의 교역규모도 세계 전체의 교역증가율에는 못 미치지만 수출 및 수입 모두 각각 연평균 2.6% 및 3.4%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5국의 수산물 수출이 세계 수산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3년 평균 20%정도이나 5국의 수산물 수입이 세계수산물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3년 평균 약 48%정도로서 이 지역이 세계수산물의 중요 소비지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세계수산물 수입의 약 30%를 점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수산물수입국이며, 미국 역시 세계수산물 수입의 약 13%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으로 세계수산물 수입이 이 양국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경영론집

중국은 세계최대의 수산물 생산국인 동시에 수입 및 수출에 있어서도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우리 나라 역시 수산물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FAO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6년 동북아 지역의 수산물 수출이 세계 수산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물량기준 17.1%, 금액기준 18.9%로 금액기준이 물량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동북아 지역의 수산물수입이 세계수산물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을 <표II-1> 동북아지역의 수산물 수출입현황 (단위: 천달러)

연도 국가	1994		1995		1996		연평균 증가율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중국	2,320,125 (4.9)	855,706 (1.7)	2,835,021 (5.5)	941,293 (1.7)	2,856,986 (5.4)	1,184,170 (2.1)	11.0	17.6
일본	742,972 (1.6)	16,140,465 (31.6)	713,219 (1.4)	17,853,481 (31.9)	709,445 (1.4)	17,023,945 (29.9)	-2.3	2.7
미국	3,229,585 (6.8)	7,043,431 (13.8)	3,383,589 (6.6)	7,141,428 (12.7)	3,147,858 (6.0)	7,080,411 (12.5)	-1.3	0.3
러시아	1,720,459 (3.6)	253,797 (0.5)	1,635,145 (3.2)	346,190 (0.6)	1,686,162 (3.2)	418,977 (0.7)	1.0	28.5
한국	1,411,052 (3.0)	718,451 (1.4)	1,564,878 (3.0)	824,817 (1.5)	1,512,992 (2.9)	1,057,402 (1.9)	3.5	21.3
5국 합계	9,424,193 (20.0)	25,011,850 (49.0)	10,131,852 (19.7)	27,107,209 (48.4)	9,913,443 (18.9)	26,764,905 (47.0)	2.6	3.4
세계전체	47,205,280 (100)	51,070,935 (100)	51,474,657 (100)	56,045,224 (100)	52,452,015 (100)	56,863,709 (100)	5.4	5.5

주 : 일본수출의 경우 자국의 집계자료보다 훨씬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자료 :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1999.

보면 물량기준으로 34.1%, 금액기준으로 47.1%로 금액기준이 물량기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수산물 교역대비 동북아지역의 수산물교역은 수출보다 수입비중이 훨씬 높고 그리고 물량기준보다 금액기준이 높다는 것은 동북아지역이 세계의 중요한 수산물 소비지역임을 의미하고 또한 고급수산물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지역은 세계최대의 수산물 공급지역인 동시에 최대 수산물 소비지라는 수산업의 국제분업의 호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아직은 수산물수입소비가 일본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중국 시장 및 한국의 수산물 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5국의 수산물 수입 비중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동북아지역의 수산물 교역구조분석

동북아지역은 1996년 총생산의 92%정도를 식용 및 비식용으로 자체소비하고, 그중 약 8%정도가 수산물교역에 할당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전체의 경우 약 81%가 자체소비되고 19%정도가 교역에 할당되는 것에 비추어 약간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표II-2>. 이러한

동북아지역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한국의 무역 진흥 전략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이 지역이 수산물 최대소비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산물수출보다 수산물수입 비중이 2배 정도에 이르고 있어 수산물 수입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의 수산물수출입단가 모두 세계평균단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지역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이 고급 어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최대의 수산물 생산국인 중국의 경우 생산량 대비 수출량 및 수입량의 비중이 5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어업생산량 확대는 대부분 국내소비에 충당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수산물 수출단가와 수입단가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미루어볼 때 중국의 수산물수출은 대부분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한 고부가 수산물 중심이고 수입은 대중소비 또는 비식용 수입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중이 거의 절반수준(49.3%)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수출량 비중은 3.9%에 불과하여 일본의 수산물 소비수준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수산물의 수출단가와 수입단가 모두 5국 중 최고수준을 나타내주고 있어 고급수산물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2> 동북아 지역의 어업생산과 수출입관계 및 수출입단가 (단위: 천톤, %, \$/톤)

	생산량(A)	수출량(B)	B/A	수입량(C)	C/A	수출단가	수입단가
중 국	31,937	740	2.3	1,367	4.3	3,861	866
일 본	6,793	263	3.9	3,347	49.3	4,676	5,086
미 국	5,394	1,120	20.8	1,447	26.8	2,811	4,893
러시아	4,729	1,271	26.9	530	11.2	1,327	791
한 국	2,772	423	15.3	521	18.8	3,577	2,030
5국합계	51,625	3,817	7.4	7,211	14.0	2,734	3,711
세계전체	121,010	22,279	18.4	21,256	17.5	2,354	2,693

자료: FAO, 「Global Production」, 「Trade and Production」, 1999.

미국의 경우 생산량 대비 수출량과 수입량의 비중이 큰 차이가 없으나 수입량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미국도 수산물소비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산물 수입단가는 수출단가에 비해 약 2배정도에 이르고 있어 미국 역시 수산물소비가 상당히 고급수산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생산량 대비 수출량의 비중이 수입량 비중의 2배이상이고 단가 역시 약 2배정도임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교역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생산량 대비 수출량의 비중이 수입량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나 수출단가가 수입단가의 약 1.5배 정도에 이르고 있어 아직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교역구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 비교해 볼 때 수산물 수입단가가 2배 이상의 고가임을 미루어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의 수산물 수입구조도 점차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 동북아시아의 국가간 수산물 교역구조

1) 5국 상호간의 수산물 교역규모

1996년 현재 5국의 수산물 총교역량은 1,992,636톤에 이르고 있고 교역금액은 7,982,027천달러(약 10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교역량이 불명인 것을 감안하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표II-3>.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5국간의 수산물 교역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190,888톤이고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21,682톤,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량은 29,067톤이고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88,942톤,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량은 51,041톤이고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자료미상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으로 대체하였고 이는 78,242톤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량은 3,443톤이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출량은 147,660톤이다.

<표II-3> 동북아 5국 상호간의 교역현황 (단위: 톤, 천달러)

국 가	교 역 량	교 역 금 액	국 가
한 국	→ 190,888	→ 1,217,476	일 본
	← 21,682	← 87,603	
한 국	→ 29,067	→ 81,625	미 국
	← 88,942	← 152,260	
한 국	→ 51,401	→ 68,060	중 국
	← 78,242	← 217,354	
한 국	→ 3,443	→ 9,201	러 시 아
	← 147,660	← 213,727	
일 본	→ 13,433	→ 222,706	미 국
	← 473,943	← 1,679,880	
일 본	→ 74,378	→ 58,036	중 국
	← 354,834	← 2,172,071	
일 본	→ ?	→ ?	러 시 아
	← 222,579	← 1,232,331	
미 국	→ 73,047	→ 92,133	중 국
	← 103,107	← 293,653	
미 국	→ 6,080	→ 5,461	러 시 아
	← 59,910	← 178,450	
중 국	→ ?	→ ?	러 시 아
	← ?	← ?	
거 래 총 량	1,992,636	7,982,027	

주 : 1) 화살표(→) 방향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을 의미함.

2) 교역량은 각국의 수출량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며 중국, 러시아 교역량의 경우는, 한국, 일본, 미국의 수입량으로 대체하여 계산된 것임.

자료 : 해양수산부, 연도별 주요 국가별 수출입실적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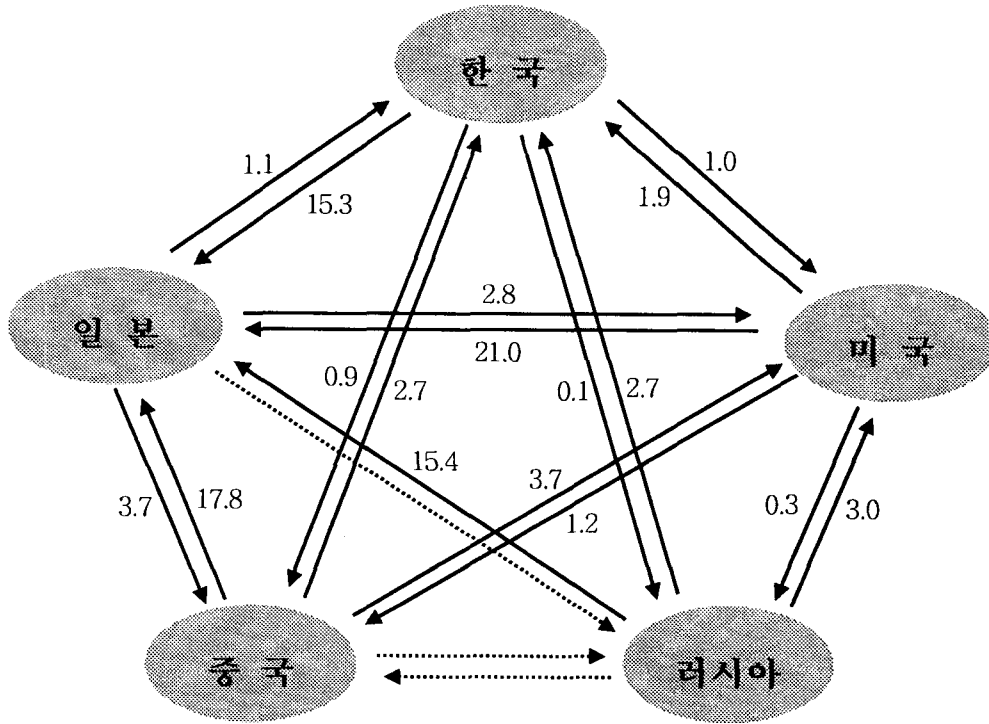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 1997.

미국, National Oceanic Atmospheric Administration Fishery Statistics, 1999.

동북아지역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한국의 무역 진흥 전략

일본을 중심으로 5국간의 수산물 교역규모를 보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량은 13,433톤이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량은 473,943톤,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량은 74,378톤이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량은 자료미상으로 중국으로부터 일본수입량으로 대체하였고 이는 354,834톤이다. 일본에서 러시아로 수출량은 미상이고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수출량은 222,579톤이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5국간의 수산물 교역규모를 보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량은 73,047톤이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량은 역시 자료미상으로 중국으로부터 미국수입량으로 대체하여 103,107톤이며, 미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량은 6,080톤이고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출량은 자료미상으로 러시아에서 미국의 수입량으로 대체하여 59,910톤이다. 단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실적은 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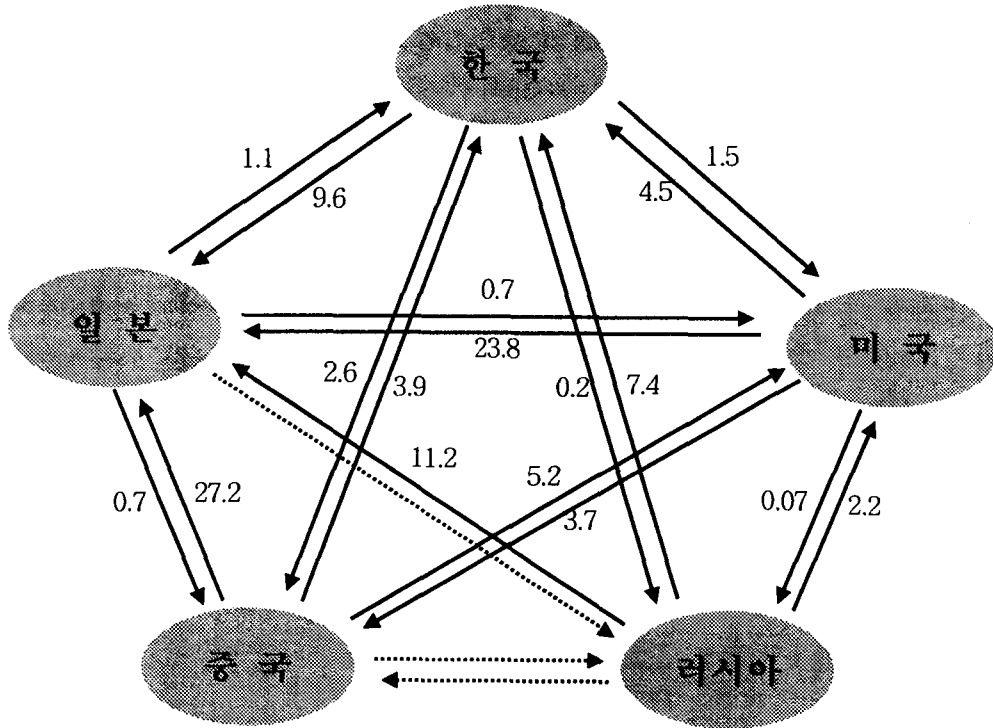


주 : 1) 점선은 불명을 나타냄.
 2) 수치는 5개국 교역량(100)에 대한 비율임.
 자료 : <표II-3>

<그림 II-1> 5개국의 물량기준 수산물 교역비중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기준 5개국간의 전체 수산물 교역량 대비 각 국가간 교역량 비중은 미국과 일본의 교역이 2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교역이 21.5%, 일본과 러시아의 교역이 11.2%, 한국과 일본의 교역이 10.8%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림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기준 5개국간의 전체수산물 교역금액대비 각 국가간 교역금액 비중은 위에서와 달리 중국과 일본의 교역이 2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의 교역이 23.8%, 한국과 일본의 교역이 16.4%, 일본과 러시아의 교역이 15.4%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주 : 1) 점선은 불명을 나타냄
 2) 수치는 5개국 교역금액(100)에 대한 비율임.
 자료 : <표II-3>

<그림II-2> 5개국의 금액기준 수산물 교역비중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물량, 금액기준 모두 상위 교역 대상국이 모두 일본임을 알 수 있는데 현재까지도 엄연히 일본이 동북아지역의 수산물교역의 핵심국가임을 알 수 있다.

2) 5국의 수산물 수입관세율 구조

동북아 4국의 수산물 수입관세구조는 미국과 일본과 같이 선진국의 수입관세는 저관세국으로 분류할 수 있고, 우리 나라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경우 평균 관세국으로 그리고 중국과 같이 저개발국의 경우 고관세국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표II-4>. 특히 중국의 경우 기본관세율 외에도 17%의 부가세가 따로 부가되고 있어 상당히 높은 고관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공단계별 수산물의 수입관세구조를 보면 4국 모두 가공정도가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 즉, 경사관세구조(Tariff Escalation System)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WTO 및 APEC에 제출한 수산물 부문 교역자유화 계획에 의하면 향후 수산물 수입관세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수산물 자유무역지대설치의 경제적효과 규명을 위해 필요한 우리 나라의 수산물 수입의 평균관세율은 <표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0%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표Ⅱ-4> 5국의 수산물 수입관세율

품 명	한 국	일 본	미 국	중 국
활어 (HS 0301)	10%	1.7-3.5%	0%	30%
신선, 냉장, 냉동, 어류 피렛, 기타어육 (HS 0302, 0303, 0304)	신선 20% 냉동 10%	3.5-5%	0-6%	25-30%
염장, 건조, 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 (HS 0305)	20%	10-15%	1-12%	55% + (17%부가세)
갑각류, 연체동물 (HS 0306, 0307)	20%	2-13%	0%	45%
조제품 (HS 1604, 1605)	20%	5-12%	0-15%	65%

주 : 러시아의 자료는 입수 불가능하여 제시하지 못하였음.
자료 : APEC, 1998.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동북아 5개국간의 수산물 교역 규모는 금액이나 물량면에서 엄청난 시장 점유율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국제 수산물 상거래상의 교역 흐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류 부문의 국내 흐름이다. 이같은 실질적인 물류 부문의 흐름은 국제 통계상으로는 잡히지 않고 있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우리 나라를 통한 입출 물량은 연간 60만톤에서 70만톤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수산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전략적으로 국내에 유치한다면 보관, 포장, 선별, 하역, 운송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제수산물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엄청난 부가가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서 수산물 자유무역지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Ⅲ. 수산물 자유무역지대화의 전략

1. 동북아 수산물무역 거점화의 필요성

한국, 일본, 중국이 최근 체결한 상호 어업협정 뿐만 아니라 한일 어업협정으로 동북아 수역은 새로운 해양질서 시대를 맞고 있다. 조업할 수 있는 어장 공간이 좁아져서 어로 행위에 통제를 받는 등 어업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10위권인 우리 나라 수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수산업은 규모나 자금면에

서 영세하여 IMF 관리체제에서 유가와 어구용품 가격의 등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5개국간의 수산물 교역량은 연간 약 2백1만1천1톤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80억달러, 약 1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 한편 아태 경제협력체(APEC)는 아태 지역 국가간의 경제유대 강화 필요성에 따라 1989년 캔버라 회의에서 태동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그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출범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성과가 미진하다는 몇몇 국가의 지적에 따라 지역무역자유화 부문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1997년에는 분야별 조기자유화 (EVSL :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계획을 확정하여 활발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조기 자유화 품목에 수산물이 포함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동북아 지역 수산물 교역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부가가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수산물 자유무역지대의 의의

수산물 자유무역지대화를 위해서는 자유항의 잠재능력 제고와 제도 및 법규의 정비, 편리한 항만시설과 수배송시스템의 완비, 선박수리시설 등의 서비스시설, 수산물 국제거래시장 확보 등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관세 철폐를 통한 수산물자유지대는 수산물 반입 및 국제 상업활성화를 통해 운수 및 보관산업과 수산가공업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속에서 수산가공산업은 부단한 신제품 개발과 시장개척 등 다각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전문화·다각화하여 상품가치를 높이는 일은 가공산업 육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돼야 하며, 염장품이나 냉동품이 국내시장이 아닌 외국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등 한국 주변국의 수산물 소비가 전세계의 55%에 달하는 만큼 해상운송비와 냉장 보관료에서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수산물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되면, 동북아의 수산물이 총집결하고, 무역업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나라는 명실상부한 수산물 국제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 사항을 고려하면서 수산물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한국 수산업을 위한 전략적으로 계획으로 채택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자유무역지대와 종합보세구역 및 수출자유지역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면 <표 III-1>과 같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대의 계획은 전략적 계획, 경영계획,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등 4가지 단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 가장 상위개념인 전략적 계획으로서 이는 항만의 광범위한 운영지침의 목적과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자유무역지대 개발 및 운영관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자유무역지대에 있어 전략적 계획은 근본적으로 특정 지대가 갖

고 있는 강점들을 보다 강화시키고 약점들을 보다 보강함으로써 각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대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략적 계획수립의 중요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 III-1> 자유무역지대와 국내유사지역 비교

	자유무역지대	수출자유지역	종합보세구역
근거법률	자유무역지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관세법
주요지원업종	물류업	제조업	제조업
관세법상성격	관세영역 밖 (관세법 적용 배제)	보세구역 (관세부과 유보)	보세구역 (관세부과 유보)
관세면제범위	모든 물품	모든 물품	과세 (제품과세, 원자재 비과세)
지역내물품에 대한 간접세	비과세	과세	과세
물품 검사·확인 및 신고	생략	세관장·관리소장 확인	모든 물품 확인
관세면제물품의 사후관리	사후관리 없음	사후관리	사후관리

첫째, 내부 및 외부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계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자유무역지대 경영환경의 변화와 추세가 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추정하여야 한다. 이에는 자유무역지대의 시장점유율 분석과 경쟁상대의 서비스 제공능력과 비용구조, 화물량의 변동과 수송수요의 추이, 기술진보, 원양수 산회사 및 항로추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자유무역지대의 사명 및 목표는 모든 자유무역지대 계획의 기초로서 지대 개발운영의 목적, 지대의 지역경제적 역할과 기능, 일반재정적 목표 등으로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대의 전략형성에 지침이 된다.²⁾

셋째, 자유무역지대의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야 한다.

지대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는 것은 반드시 조직으로서의 지대의 경쟁력에 초점이 주어진다. 평가항목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 가능한 물적자산, 지대운영의 기술과 경험, 노동력, 지대의 재정상태 및 지대에 대한 법적이고 규제적인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각각을 경쟁 지대와 비교해야 하고 평가는 자유무역지대의 전략적 경영단위와 지대의 고객, 시장 및 경쟁지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는 먼저 각 단위의 다음 능력을 검토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해운산업연구원, 우리 나라 컨테이너항만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1993, pp. 306~310.

- ① 지대의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능력
- ② 고객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능력
- ③ 신기술 채용 능력
- ④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능력

자유무역지대의 물적재산의 평가와 그것의 타 지대와의 비교는 가장 쉽고 또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평가방법이다. 이 평가는 물적자산의 수용능력뿐 아니라 그것의 생산성 그리고 이용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한 장비와 기기는 지대에게 특정 틈새 수산시장에서의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의 장단점의 근원

- ① 입지
 - 무역경로와 관련한 입지
 - 하주와 관련한 입지
- ② 자산
 - 접근, 수심
 - 기기의 종류
 - 특수설비
 - 가용능력
- ③ 경험
 - 선박의 유형과 크기
 - 상품의 종류
 - 화물의 형태
- ④ 인력
 - 기술
 - 사회풍요
 - 동기유발
 - 전문성
 - 고객과의 접촉
- ⑤ 이행
 - 선석, 설비의 이용
 - 화물취급 생산성
 - 원만한 노사관계
- ⑥ 융통성
 - 특수화물의 취급
 - 개별고객의 수요충족
 - 신규 서비스 요구조건에 충족
 - 노동의 융통성(작업규정)
 - 설비의 융통성
 - 서류의 간소화

동북아지역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한국의 무역 진흥 전략

- 세관업무의 간소화
- 계약절차의 효율화
- ⑦ 보조서비스
 - 화물서비스 - 처리, 혼재 내륙컨테이너 기지
 - 선박서비스 - 병커링, 선박계획, 선박수리, 선원조달
 - 로지스틱스 서비스 - 보관, 연계운송
 - 재정서비스
 - 정보처리 - EDI, 화물추적, 계산서 작성
 - 통신
- ⑧ 재정조건
 - 투자능력
 - 자금에의 접근가능성
 - 자본비용
 - 노동비용

이러한 평가의 목적은 조직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점을 개발하고 단점을 줄이는 기회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무역지대가 시장웨어를 확보하고 신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촉진해야 할 능력과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대 분석에 있어서는 그들의 장점을 개발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지대가 채택하고 있는 조치도 분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대안을 바탕으로 하여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게 된다. 자유무역지대의 활동을 증대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전략은 외적 및 내적 환경을 평가함으로써 확인된다. 이들 전략은 특정시장에서의 지대의 상대적인 웨어를 증대시키거나 무역과 운송의 전체적인 양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그것들은 이들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지대를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고, 지대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보조적인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도입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 전략들은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일 것이다. 공격적인 전략은 시장에서의 기회와 경쟁지대에 대한 우위성을 이용하고자 한다. 수동적인 전략은 경쟁위험을 줄이거나 조직적인 약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들 전략에서 추천되는 기본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 (a) 신설비와 기기에 대한 투자
- (b) 기존 노동과 설비의 재분배
- (c) 자유무역지대 노동 기술의 향상
- (d) 설비의 개선
- (e) 추가적인 물류서비스의 제공
- (f) 자유무역지대 서비스 제공 방식의 재구축
- (g) 자유무역지대 서비스 경영의 재조직
- (h) 자유무역지대 서비스를 제3자에게 맡김

- (i) 노동삭감을 포함한 원가절감 조치의 실시
- (j) 경영과 노동을 위한 재정적인 인센티브 제공
- (k) 할인요율의 도입

IV. 수산물 자유무역지대 설치 효과의 경제적 분석

1. 무역확대효과와 무역전환효과

우리 나라에 수산물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로는 무역확대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나누어 파악할 수가 있다.

무역확대효과라 함은 자유무역지대로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말미암아 수산물 수입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효과이다. 따라서 이 경우 그동안 외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1차가공한 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수산물 수입업자들에게는 상당한 가격인센티브가 부여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의 수입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요인으로 인한 수산물 수입물량의 증가효과가 무역확대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무역전환효과³⁾라 함은 세관 수속을 생략함으로써 말미암아 선적과 양륙의 간소화,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편리한 물류시설구비, 인근시장으로의 접근용이성 등으로 타국으로 유입되던 수입물량 중 일부가 자유무역지대 설치국가로 유입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무역전환효과가 뚜렷이 예상되는 부분은 우리 나라의 지리적 입지조건을 감안해 볼 때 러시아, 중국의 경우 자국내의 물류시설의 낙후로 인해, 미국의 경우 세계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인 일본시장으로의 접근용이성, 그리고 일본 국내의 높은 물류비용 등으로 이들 3국으로부터 일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산물의 상당부분이 우리 나라로 반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산물 자유무역지대설치의 경제적 효과는 무역확대효과에 따른 우리 나라 수산물 수입물량 증가와 무역전환효과에 따른 중국, 러시아,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유입되는 수산물 물량의 일정부분을 합산한 것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한다.

2. 무역확대효과로 인한 반입예상 물동량 추정

무역확대효과로 인한 우리 나라 수산물수입물량의 증가량(또는) 금액을 추정하기 위하여서는 현행 우리 나라의 수산물 수입관세구조와 함께 우리 나라 수산물 수입함수 추정이

3) 본래 무역전환효과란 관세동맹의 경제적효과의 일부로서 관세동맹으로 말미암아 효율적인 생산국으로부터 비효율적 생산국으로의 수입전환으로 인한 후생감소효과 및 관세철폐로 말미암은 가격왜곡의 제거로 발생하는 후생증가효과를 아울러 지칭하는 것이며 여기서 의미하는 바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LFIQt = 2.94 - 0.47LRPt + 0.77LGDpt \text{ --- (1)}$$

(여기서 LFIQt = 수산물 수입량을 log로 취한 값

LRPt = 수산물 수입가격을 log로 취한 값

LGDpt = 소득(국내총생산)을 log로 취한 값)

여기에서 우리 나라의 수산물 수입관세의 평균을 약 20%로 간주하였고, 우리 나라의 수산물 수입의 가격탄력성을 0.47≒0.5로 간주할 경우 수입관세철폐로 인한 우리 나라 수입 수산물량의 증가율은 약 10%로 간주하였다. 즉, 1997년 기준 우리 나라 수산물 총수입물량이 522,381톤이고 수입단가가 2,001\$/톤임을 미루어볼 때 무역확대효과는 52,238톤이며, 금액으로는 104,528천\$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V-1> 수산물 자유무역지대 설치의 무역확대효과(1997) (단위:톤, \$/톤, 천\$)

우리 나라 수산물 수입량	수입단가 (\$/톤)	수입관세율	수입수요가격탄력성	무역확대효과	
				수량	금액(천\$)
522,381	2,001\$/톤	20%	0.47≒0.5	52,238	104,528

3.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반입예상 물동량 추정

여기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무역전환효과는 동북아 5개국의 상호 교역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미 앞에서 언급한 <표II-3> 동북아 5국 상호간의 교역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북아 5개국의 수산물 교역의 중심에 있는 각국과 일본의 수산물 교역(일본의 입장에서는 수산물수입)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다시말해 일본으로 흘러가고 있는 수산물 중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수출되어 간다면이라는 가정에서 무역전환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우리 나라 수산물 반입물량의 예상증가량(또는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미국, 러시아, 중국으로부터의 품목별 수입물량과 금액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수산물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⁴⁾.

1997년 기준 일본이 미국,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산물 물량 총량은 미국이 407,729톤 (금액은 1,594,450천\$), 러시아가 186,925톤(금액 1,001,770천\$), 중국이 361,327(2,154,108천\$)로 나타나고 있으나 활어수입의 경우 수산물 자유무역지대설치의 영

4) 무역전환효과 분석을 위해 이용되는 기초통계는 일본 농림수산성 수산물무역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자세한 기초통계 및 내용에 대해서는 부경대학교 수산기업연구소 「WTO체제하의 동북아시아 수산물 무역 진흥방안」, 2000.11, p46~49를 참조 바람.

수산물경영론집

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무역 전환이 일어난다고는 예상되지만 일본의 이들 3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전부가 우리 나라로 반입된다고는 볼 수 없기에 최대 50%를 기준으로 그 절반인 25%의 두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제시한 것이 <표 IV-2>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표 IV-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 수산물자유무역설치로 인한 반입예상 수산물 총량 및 금액은 25%의 무역전환효과를 예상할 경우 물량은 289,765톤이고 금액은 약 12억6천만\$이며, 50%의 무역전환효과인 경우 물량은 527,293톤이며 금액은 약 24억2천만\$이다.

<표 IV-2> 수산물 자유무역지대설치의 무역전환효과 (단위: M/T, \$/톤, 천달러)

일본의 3국으로 부터의 수산물 수입량(A)	활어 수입량 (B)	(A-B)	수입금액	평균수입 단가 (\$/톤)	무역전환효과			
					25%기준		50%기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955,981	5,871	950,110	4,630,331	4,874	237,527	1,157,583	475,055	2,315,166

<표 IV-3> 수산물 자유무역지대 설치로 인한 예상 총반입물량 (단위: M/T, \$/톤, 천달러)

무역확대효과1)		무역전환효과 I 2)		무역전환효과 II 3)		총효과			
						I		II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52,238	104,528	237,527	1,157,583	475,055	2,315,166	289,765	1,262,111	527,293	2,419,694

- 주 : 1) 무역확대효과는 <표 IV-1> 수산물 자유무역지대 설치의 무역확대효과의 결과치임.
 2) 무역전환효과 I 은 <표 IV-2> 수산물 자유무역지대설치의 무역전환효과 25% 기준 결과치임.
 3) 무역전환효과 II 는 <표 IV-2> 수산물 자유무역지대설치의 무역전환효과 50% 기준 결과치임.

V. 동북아 수산물 물류거점 지역으로서의 경쟁잠재력

- 부산을 자유무역지대 대상으로 가정 -

1. 시설능력

부산지역 냉동냉장창고는 규모적으로 대형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현재 냉장능력 5,000 M/T이하의 냉동냉장창고는 업체수에서는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5,000

M/T이상의 냉동냉장창고는 5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냉장능력면에서 살펴보면 5,000 M/T이하의 냉동냉장창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7.5%에 지나지 않고, 5,000 M/T이상의 냉동냉장창고의 실제 냉장능력은 92.5%를 차지하고 있다.

냉장능력 10,000 M/T이상의 냉동냉장창고는 업체수면에서는 37.5%를 차지하고 실제 냉장능력면에서는 81.8%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냉동냉장창고가 부산지역 냉동냉장창고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업체수 비율을 실질적인 총냉장능력면에서 살펴보면 <표 V-1>과 같다.

<표 V-1> 부산지역 냉동냉장창고의 규모별 추이 (단위 : 개, %)

년 도 별 규 모 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업체수	업체수	업체수	업체수	업체수	실제 냉장능력
계	95(100)	99(100)	100(100)	101(100)	104(100)	987,383 (100)
50톤이하	1 (1.1)	3 (3.0)	3 (3.0)	4 (4.0)	3 (2.9)	18 (0.00)
50톤초과 - 100톤이하	2 (2.1)	2 (2.0)	4 (4.0)	4 (4.0)	4 (3.8)	286 (0.03)
100톤초과 - 500톤이하	11 (11.6)	13 (13.1)	13 (13.0)	13 (12.9)	12 (11.5)	3,850 (0.39)
500톤초과 - 1,000톤이하	6 (6.3)	3 (3.0)	3 (3.0)	3 (3.0)	3 (2.9)	2,198 (0.22)
1,000톤초과 - 5,000톤이하	35 (36.9)	34 (3.4)	32 (32.0)	31 (30.7)	29 (27.9)	67,641 (6.85)
5,000톤초과 -10,000톤이하	12 (12.6)	14 (14.1)	14 (14.0)	14 (13.9)	14 (13.5)	105,558 (10.69)
10,000톤초과 -	25 (26.3)	28 (28.2)	31 (31.0)	32 (31.7)	39 (37.5)	807,832 (81.82)

주 : ()는 당해연도의 비중을 나타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자 료 : 냉동냉장업시설현황, 냉동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1998).

수산물 가공업체 현황(1998. 12.31), 부산시.

2. 가공 능력

현재 식품위생법의 허가업체, 수산업법의 가공신고업체, 가공허가업종 어유와 한천을 제외한 부산지역 수산업법의 가공허가업에 속하는 냉동냉장창고의 가공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V-2>와 같다.

동결가공능력은 총 5,181.1 T/D로 지역별 세력으로 살펴보면 남부민동 19.7%, 감천동 17.6%, 구평동 14.1%, 암남동 11.4%, 다대동 11.0%, 장림동 10.3%, 기타 10.3%, 신평동 5.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산지역 업체당 평균 동결 능력은 49.8 T/D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구평동 104.7 T/D, 감천동 75.8 T/D, 다대동 71.5 T/D, 남부민동 60.0 T/D, 암남동 53.6 T/D, 신평동 36.3 T/D, 기타 29.6 T/D이다.

수산경영론집

냉장가공능력은 총 987,383 M/T로 지역별 세력으로 살펴보면 감천동 22.9%, 암남동 20.5%, 구평동 11.5%, 남부민동 11.2%, 장림동 10.7%, 신평동 9.3%, 기타 7.8%, 다대동 6.0%이다.

<표 V-2> 부산의 냉동냉장창고 가공처리 능력의 지역별 분포

지명	업체수 (개소)		동 결 (T/D)			냉 장 (M/T)			가공처리면적 (㎡)			시설 연수
	업체수	%	능력	%	업체당 능력	능력	%	업체당 능력	면적	%	업체당 면적	평균시 설연수
합계	104	100	5,181.1	100	49.8	987,383	100	9,494	65,408.7	100	628.9	12.9
감천동	12	11.5	910.0	17.6	75.8	225,672	22.9	18,806.0	8,769.7	13.4	730.8	9.7
구평동	7	6.7	733.0	14.1	104.7	113,762	11.5	16,251.7	1,183.3	1.8	169.0	10.7
남부민동	17	16.3	1,020.8	19.7	60.0	110,459	11.2	6,497.5	17,421.1	26.6	1,024.8	18.9
다대동	8	7.7	572.0	11.0	71.5	59,425	6.0	7,428.1	3,050.0	4.7	381.3	10.9
신평동	8	7.7	290.5	5.6	36.3	91,960	9.3	11,495.0	6,243.9	9.5	780.5	10.1
암남동	11	10.6	589.9	11.4	53.6	202,887	20.5	18,444.3	9,990.3	15.3	908.2	7.7
장림동	23	22.1	531.5	10.3	23.1	105,999	10.7	4,608.7	13,602.0	20.8	591.4	14.6
기타	18	17.3	533.4	10.3	29.6	77,219	7.8	4,289.9	5,148.3	7.9	286.0	20.8

주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 냉동냉장업시설현황, 냉동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 1997. 11.
수산물가공업체 현황, 부산시, 1998.

또한 업체당 평균 냉장 능력은 9,494 M/T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감천동 18,806.0 M/T, 암남동 18,444.3 M/T, 구평동 16,251.7 M/T, 신평동 11,495.0 M/T, 다대동 7,428.1 M/T, 남부민동 6,497.5 M/T, 장림동 4,608.7 M/T, 기타 4,289.9 M/T이다.

가공처리 총면적은 65,408.7㎡로 지역별 세력으로 살펴보면 남부민동 26.6%, 장림동 20.8%, 암남동 15.3%, 감천동 13.4%, 신평동 9.5%, 기타 7.9%, 다대동 4.7%, 구평동 1.8%이다. 또한 업체당 평균 가공처리 면적은 628.9㎡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부민동 1,024.8㎡, 암남동 908.2㎡, 신평동 780.5㎡, 감천동 730.8㎡, 장림동 591.4㎡, 다대동 381.3㎡, 기타 286.0㎡, 구평동 169.0㎡이다.

평균시설연수는 부산지역 평균이 12.9년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암남동이 7.7년, 감천동이 9.7년으로 비교적 신설냉동냉장창고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평동 10.1년, 구평동 10.7년, 다대동 10.9년, 장림동 14.6년, 남부민동 18.9년, 기타 20.8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산지역에는 냉동냉장업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수산가공품에 속하는 어육 연제품, 건포류가공업, 절입식품, 통조림, 펠렛 등의 처리 가공을 행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추고는 있으나 현재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있는 수산가공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 다시 말해 이러한 유휴시설을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냉동냉장창고 이용 비용

부산지역 냉동냉장창고의 냉장료는 1998년 이후 반입량 격감으로 인해 상당히 인하된 상태이다. 심지어 덩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물량 확보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통상 업계의 덩핑이라는 수준은 예를 들면 냉동명태 1팬당 일일냉장료는 평균 9원, 입고료 65원, 출고료 52원이 통상적이나 현재는 냉장료 5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냉동냉장창고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요율을 기준으로 일본의 냉동냉장창고의 기본요율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 V-3> 과 같다.

<표 V-3> 냉동냉장창고 냉장료 및 입출고료의 한일 비교 (기준환율(₩10.0 : ¥1))

항목	부산의 기본요율①	서일본의 기본요율②	①/②
1. 저온창고 (-20~-30℃)			
① 냉장료	₩9/20kgPAN/11 ₩0.45/kg/11	¥25/10kg/1511 ¥0.17/kg/11	
(기준환율 적용시)	₩0.45/kg/11	₩1.7/kg/11	1/3.8
② 입출고료	- 입고료 ₩65/20kgPAN ₩3.25/kg	- 입출고료 ¥32.30/10kg×2 ¥3.23/kg×2	
- 출고료 ₩52/20kgPAN ₩2.6/kg			
(기준환율 적용시)	₩5.85/kg	₩64.6/kg	1/11.04
2. 초저온창고 (-50~-60℃)			
① 냉장료	₩2/kg/11	¥26.60/10kg/1511 ¥0.18/kg/11	
(기준환율 적용시)	₩2/kg/11	₩1.8/kg/11	1/0.9
② 입출고료	₩8/kg	¥2.74/kg	
(기준환율 적용시)	₩8/kg	₩27.4/kg	1/3.43

주 : 부산과 서일본 냉동냉장창고협회자료를 토대로 작성.

저온창고의 경우, 냉장료의 기본요율은 부산의 경우 평균 0.45원/Kg/일인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1.7원/Kg/일므로 부산에 비해 일본의 평균 냉장비용이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현재 부산의 냉장료 덩핑수준에 비해서는 9.4배에 달하고 있어 부산이 지닌 경쟁력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저온창고의 입출고료를 비교하여 보면 부산의 기본요율은 평균 5.85원/Kg인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64.6원/Kg으로 부산에 비해 일본의 입출고 비용이 11.0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현재의 부산의 입출고료 징수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초저온의 경우 부산의 기본 냉장요율은 2원/Kg/일이고 일본의 기본 냉장요율은 1.8원/Kg/일으로 오히려 일본의 기본요율이 부산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산의 실질적인 냉장료는 1.6원/Kg/일으로 일본의 기본요율보다는 조금 낮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저온의 경우 입출고 요율은 부산의 기본요율이 8원/Kg이고 일본의 기본요율이 27.4원/Kg으로 부산에 비해 일본이 3.43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산의 냉동냉장창고의 평균 이용 비용이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항만 물류비용

러시아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컨테이너 운송을 통하여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자국내에 반입하여 가공처리한 후 미국시장이나 유럽시장으로 반출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노동조건과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비교척도는 항만물류비용이다.

<표 V-4>는 부산항, 일본의 요코하마항, 대만의 카오슝항의 항만물류비용을 나타내고

<표 V-4> 동남아 주요항의 물류비용

구 분		부산(천원)	요코하마(¥)	카오슝(NT\$)
사용 시설료	선박입항료	5,120	540,000	40,179
	집안료	2,040	804,000	47,328
	화물입항료	3,072	-	355,552
	합계	10,232	1,308,000	443,059
	원화기준(부산항=100)	10,232(100)	13,080(128)	11,679(114)
부대 서비스료	예선사용료	2,111	203,400	39,440
	도선료	493	663,459	72,000
	합계	2,604	866,859	111,440
	원화기준(부산항=100)	2,604(100)	8,669(333)	2,938(113)
하역 비용	하역료	49,938	41,690,880	1,901,300
	보관료	2,688	317,520	533,260
	합계	52,626	42,008,400	2,434,560
	원화기준(부산항=100)	52,626(100)	420,084(798)	64,175(122)
항비	합계	65,462	44,183,259	2,989,059
	원화기준(부산항=100)	65,462(100)	441,833(675)	78,792(120)
기타 비용	컨테이너세	20,000①	-	-
	ODCY취급비용	28,980②	-	-
	항만건설기금	-	-	1,065,000
	야간하역장비사용료	-	-	5,864
	합계	48,980	-	1,070,864
	원화기준(부산항=100)	48,980(100)	-	28,228(58)
전체 비용	총계	114,442	441,833	4,059,923
	원화기준	114,442(100)	441,833(386)	107,020(94)

자료 : 부산시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항과 대만의 카오슝항은 거의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 요코하마항의 경우는 부산항과 카오슝항에 비해 약 4배 가까운 물류 비용이 소요된다.

한편 러시아로부터의 운송비용은 20TEU기준으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 → 부산항과 블라디보스톡항 → 요코하마항은 동일하게 약 800달러가 소요되고, 블라디보스톡항 → 카오슝항까지의 직항로는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 파악되어 블라디보스톡항 → 부산항 → 카오슝항과 같이 부산항을 환적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의 운송비용은 부산항까지의 800달러의 부산항에서 카오슝항까지의 약 340달러가 추가로 소요됨.

이상과 같이 항만 물류 경비 측면에서도 부산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노동력의 경쟁조건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은 IMF 이후 상당히 침체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정 하에서도 인근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3D 업종에 속하는 수산가공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노동력 역시 미비한 사정이다.

우리 나라의 임금수준이 타국가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비교하여 보면 <표 V-5>와 같다. <표 V-5>은 주요 국가의 제조업 종사자의 노동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산가공업이라는 특정 분야의 노동임금을 상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대신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나라의 임금수준을 100을 볼 경우 우리 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일본 290.05, 노르웨이 253.52, 영국 183.37, 미국 182.59, 캐나다 145.81, 호주 142.79, 싱가포르 141.77, 프랑스 130.57, 대만 105.93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국가를 살펴보면, 홍콩 66.80, 필리핀 18.14, 태국 14.97, 러시아 7.31, 중국 4.87, 인도네시아 4.82, 파키스탄 4.71, 인도 2.87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진 수산가공업을 국내에서 특히 부산에서 수행하는 것은 인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비해 절대적인 열위에 있어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산가공업을 부산지역의 잠재 가공능력의 극대화라는 목표에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력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중국 현지에 진출한 외국수산기업 특히 우리 나라 수산기업이 현지 중국인에게 지불하고 있는 임금은 현지 화폐로 500인민원에서 700인민원 수준으로 우리 나라 원환산액으로는 6만원대에서 9만원대 수준이다. 한편 우리 나라 수산기업이 중국인 노동자를 연수 형식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지불하고 있는 임금은 기본급으로 약 25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이고 능력별 시급으로는 시간당 평균 1,000원에서 1,200원 수준이다. 따라서 월 지급되는 임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표 V-5> 주요국의 노동임금액 비교

국가 또는 지역명	단위	임금액①	원환산②	지수③	비고
한국	월	1,262,207원	1,262,207	100.00	현물급여. 가족수당등을 포함. 고용자
일본	월 일 시	366,103엔(284,707엔) 18,123엔(14,094엔) 2,208엔(1,717엔)	3,661,030 181,230 22,080	290.05	현금급여 총액. 사업소규모 3인 이상. ()안은 정기급여(보너스를 포함하지 않음) 1개월 평균출근일수 20.2일, 총노동시간 165.8시간(가운데 소정내152.6시간)으로 산출. 일급 및 시급은 월당 현금급여총액을 평균출근일수 또는 총노동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
미국	시	12.78달러	13,900	182.59	민간부문, 제조업, 건설업노동자. 관리직은 제외
프랑스	시	50.63프랑(93년)	9,940	130.57	
영국	시	8.22파운드	13,960	183.37	풀타임노동자.
캐나다	시	16.2캐나다달러(95년)	11,100	145.81	고용자
노르웨이	시	114.12클로네	19,300	253.52	현물급여를 포함. 청년노동자 제외
호주	시	45.5호주달러(95년)	10,870	142.79	미성년노동자, 관리직 제외.
싱가폴	월	2,319.5싱가폴달러	1,789,490	141.77	고용자
태국	월	5,000바츠(95년)	189,000	14.97	국영기업을 제외. 표준노동시간당 평균임금률.
필리핀	월	5,581페소(93년)	228,940	18.14	고용자. 연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인도네시아	월	101,299루피아(92년)	60,780	4.82	고용자
중국	월	470.17인민원	61,500	4.87	고용자
대만	월	33,765	1,337,090	105.93	고용자
홍콩	일	296.9홍콩달러	41,740	66.80	
인도	월	992루피(93년)	36,210	2.87	
파키스탄	월	1,501루피(93년)	59,440	4.71	고용자
러시아연방	월	461,380루블	92,280	7.31	고용자

주 : ① 각국의 노동임금액은 제조업의 1996년 평균임금. ② 원환산액은 일본노동성의 「해외노동백서」를 참조한 자료임으로 1차적으로는 엔환산금액을 2차적으로 원으로 환산한 금액임. 1차적인 엔환산금액은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에 따라 1996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2차적인 원환산은 비교의 편의상 1¥=10₩으로 환산한 것임. ③ 지수는 1개월급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급과 일급을 1개월 평균출근일수 20.2 일, 총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해서 1개월 급여로 환산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 일본은 노동성 [매월근로통계조사], 그외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7]

VI. 결 론

해양체제의 구조화 작업(각국의 200해리 선포 및 이해 당사국간의 어업협정 등)이 각국 간에 진행되거나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서 있어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원양어업국이자 인접국들로 둘러싸인 근해 어장을 가진 근해어업국은 더 이상의 조업 확대에 따른 수산업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국내 수산업의 확대를 전제로 성장하여 온 연관 산업, 냉동냉장업, 운수 운송업, 하역업, 포장 물류업, 유통업 등은 생산부문의 축소 재편과 함께 한계 산업으로서 표면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내 수산업 전제가 아닌 국제 수산물을 전제로 하는 성장 전략은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동북아 수산물 교역의 실질적인 거점 지역으로 우리 나라(구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항만 수산 지역)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자유무역지대라는 제도적 도입과 함께 연관 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수산분야의 도약은 가능하다는 점을 연구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산물류조건(수산물냉동냉장창고, 가공시설 등)은 이미 본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중간 기지적 물류로만의 경쟁우위는 유지하기는 어렵다. 실례로 지대와 인건비, 물류비용이 모두 우리 나라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중국과의 동일 분야 경쟁은 얼마가지 못해 성부는 판가름날 것이다. 따라서 수산가공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함께 국제수산마켓정보와 국제수산물거래를 연계하는 고부가가치의 국제수산 물류 가공 분야로 집중시키면서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해양수산부, 「연도별 주요 국가별 수출입실적」, 1999.
강인수 외,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8
김용일, 「WTO 세계무역기구협정해설」, 한국무역경제, 1995
김태형, 「우리나라 비관세조치의 발전적 개선방향 -APEC의 비관세조치 논의를 중심으로」, 정책도의 96-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12
대우경제연구소 편,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한국경제신문사, 1994
박명섭, 「화물유보와 해운보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국제상학의 제문제, 설곡 한동호 박사 정년기념논집, 1988
--- 외, 「세계의 어업·자원관리」, 수산경제연구원, 1996
--- 외, 「국제통상영어」, 부키, 1999
박상태, 「특별긴급관세제도에 관한 설명함」, 「관세」 제29권 제322호, 1997.7
박성쾌·주문배·심기섭,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 수산업부문 최종보고서」, 1999.5
서정두, 「국제통상법」, 삼영사, 1998

-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 을곡출판사, 1994
- 손정식·한홍렬, 「APEC 비관세장벽의 현황- 조기자유화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분석 98-09, 1998
- 수산청, 「UR타결에 따른 수산정책방향」, 농어업경쟁력강화소위 회의자료, 1994
- 윤영각, 「WTO시대의 반덤핑제도」, 도서출판 한송, 1995
- 이기동 외, 「보조금관행과 국제무역」, 산업연구원, 1987
- 이춘삼, 「무역관계법」, 법문사, 1998.
- , WTO체제하에서의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개편방향(상·중)”, 「관세」 제30권 제328호·제329호, 1998.1·2
- 최세형, 「신국제통상론」, 두남, 1999
- 홍성걸·주문배·백기창 외 4인, 「수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1
- 진양현, “조정관세제도 운영실태와 산업보호효과분석” 「관세」 제29권 제 321호, 1997.6
- 최세균·이재욱외 2인, 「식품관련 관세율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C9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12
- 한홍렬, “APEC역내자유화논의 및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상)”, 「관세」 제31 권 제345호, 1999.6
- 해양수산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수산물), 1999.1
- 일본농림수산성 「1996년도 수산물 수출입실적」, 1997.
- 일본대장성, 무역통계, 1999.
- 미국 NOAA Fishery Statistics, 1999.
- FAO, 「Global Production」, 「Trade and Production」, 1999.
- Jackson, John H., The World Trading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MIT Press, 1989
- OECD, “THE ECONOMIC IMPACT OF RESPONSIBLE FISHERIES ON PRODUCTION AND MANAGEMENT”, AGR/FI(99)3, 1999.3
- OECD, “The Impact on Fisheries Resources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Transfers”, AGR/FI(99)3/Rev1, 1999.10
- Shott, Jeffrey, The Uruguay Round An Assessm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4
- WTO, Introduction to the WTO - Trading into the Future, 1999
- 日本農林水産省, 次期交渉に向けての日本の提案, 1999.6
- 인터넷자료 <http://www.wto.org/wto/environ/te31.htm>, 1999년 12월 15일
- <http://www.wto.org/wto/environ/te029.htm>, 1999년 12월 15일.

동북아시아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한국의 무역 진흥 전략

A Study of The Sea Food Trade Promotion Policy in East-North Asia

Jang, Young-Soo · Kim, Beong-Ho · Kim, Ki-Soo · Park, Myong-Sop ·
Jung, Hyung-chan · Eh, Youn-Yang

Abstract

The study tries to suggest policy proposals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our country as the base of fisheries logistics in East-North Asia. The study strongly recommends the adoption of the system of fisheries free trade area(FTA) to achieve the object under the analysis of structure of international fisheries trade in East-North Asian countries.